

# 교환학생 보고서

|       |     |     |       |            |
|-------|-----|-----|-------|------------|
| 이름    | 한글  | 이주호 | 영문    | Lee Joo Ho |
| 파견 국가 | 프랑스 |     | 파견 대학 | UTT        |

## ■ 어학집중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영어를 접할 기회와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 후 저만의 버킷리스트에 '교환학생'을 넣어 꼭 가보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환학생'이란 학생이 되보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6개월(1학기) 동안 해외에서 살고 현지인들과 어울려 보면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지원자격인 (3학기 이상 이수) 이 부분에 충족이 된 바로 직후 지원을 했습니다.

## ■ 파견기관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프랑스 하면 딱 '파리'가 떠오를 텐데 파리와 비교하자면 기차시간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1시간3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제 학교는 트루아(Troyes)라는 도시로 현지에서는 '트와'라는 불어식 발음으로 불립니다. '트루아'라는 도시 자체로만 본다면 아늑한 시골동네? 라고 저는 생각하고, 학교 주변에는 운동시설이 잘 발달 되어 있고,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등 운동을 하기 쉬운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루아'라는 도시는 결코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근처로 예를 들자면 한국과 비교해서는 놀거리(피시방,술집)가 없지만 버스타고 10분~15분정도 걸려 시내로 나가면 노래방, 외국 음식점, 술집 그리고 맥도날드를 비롯해 여기저기 위치한 공원과 밤에는 조명에 켜져서 "와 이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멋진 곳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기후에 대해 말해보자면 한국과 비교해 겨울은 덜 춥고 여름은 덜 덥습니다. 하지만 밤낮 일교차가 심해서 아무리 여름이라도 밤~새벽 시간에는 초겨울 날씨여서 걸칠 옷은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일단 저는 기숙사 중에 2인실을 이용했는데, 월 377유로 정도 됩니다.

생활비

1.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주일에 한번 장을 봤고 갈때마다 최소 40유로~50유로 썼고 소고기가 한국과 비교해보면 엄청 저렴했고, 빵, 맥주 또한 많이 샀습니다.
2. 한번 빨래하는데 드는 비용은 4.3유로 정도 했습니다. 보통 1유로가 1300~1330원정도에서 노는데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세탁비와 비교하면 많이 비쌌습니다.
3. carrefour 같은 큰 마트에 장을 보러가거나 시내로 나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는 1회권에 1.3유로, 3회권은 3.9유로 그리고 시내에 위치한 교통카드 파는 곳에 가면 20유로? 정도의 교통카드를 사면 한 달 무제한으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4. 학교 근처에 있는 피자집의 피자는 6유로~8유로로 크기와 맛을 고려하면 가성비 괜찮은 것 같고, 케밥집에서 케밥을 5유로~6유로 정도에 팔지만 맛, 양을 생각하면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음식점 또한 가격들이 괜찮습니다.
5. 시내에는 대표적으로 H&M을 비롯해 여러 옷파는 곳들이 많고 옷 가격들 또한 싼 거 같고, FOOT LOCKER 라는 신발가게에서의 신발은 한국과 비슷한 가격대에 신발이 팔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6. 여름, 겨울에 총 2번 엄청난 할인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옷을 많이 사면 괜찮습니다.
7. 버스는 보통 아침 5시30분 정도에 운행을 시작하고 10시전에는 끝깁니다.
8.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수도물을 먹어도 됩니다. 찹찹하면 물을 사마시거나 아니면 정화해 주는 깔때기를 마트에서 사서 쓰면 됩니다.
9. Flixbus 라고 짧게는 한 나라의 여러 도시로 길게는 서로 다른 나라를 갈 때 이용하는 버스를 주로 이용했는데 버스를 일찍 예매하면 그만큼 싸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Carte Jeune'이라는 일정기간 동안 기차를 이용할 때 할인을 해주는 카드를 사면 버스랑 비슷한 가격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버스비는 기차비보다 확실히 더 저렴합니다.
10. 누가 프랑스로 여행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하는데 학교내에서나 트루아 도시 내에서는 안심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파리 여행하거나 할때만 학교에서 보다 조금 더 신경만 쓴다면 안 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문화적 차이를 들자면 일단 학생들이 흥이 많고 파티를 즐겨 합니다. 여름에는 해가 꽤 늦게 지고 겨울에는 빨리 저서 이점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상당히 자유롭고 남 시선을 신경 안 쓰며 개방적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1. 학교 주최로 여행 가는 거, 학교 안에서 파티 할 때 되도록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래야 더 많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2. 교환학생들끼리는 주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초기에 다른나라 학생들이랑 말을 많이 하고 파티, 모임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K-POP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환학생 가서 공부할 생각 많이 안하는 것을 추천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어수업과 그리고 전공을 꼭 듣고 싶다고 생각하면 1~2개 정도의 전공수업만 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즐기고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고 같이 놀고 추억도 쌓아야 나중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4. 태극기는 꼭 쓸데가 있으므로 챙겨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5. 교환학생들끼리(한국인 제외) 특히 자신과 잘 맞는 친구 한명이라도 찾고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English Speaking skill은 자연스럽게 늙니다. Don't worry~~!

####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여러나라의 학생들과 많은 추억들을 쌓았고 학기 중에도 시간이 남을 때마다 여행가고 같이 웃고 떠들었던 기억들만 생각나서 좋았습니다. 평생 추억거리, 안주거리, 나중에 그때 의 사진들을 볼 때마다 '아.....이런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도 할 만큼 재밌게 즐기다 왔습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나 친화력 등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생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